

# 알츠하이머 남편과 두번째 결혼식 '잔잔한 감동'

## 기억 잃은 남편이 깜짝 청혼

미국에서 중증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남편이 자신의 아내와 다시 결혼한 사연이 전해지며 잔잔한 울림을 던졌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코네티컷주 앤도버에 거주하는 리사(54)와 피터 마샬(56) 부부의 두 번째 결혼식을 보도했다.

2018년 조기 발생 알츠하이머(early onset Alzheimer) 진단을 받은 피터는 급속히 기억을 잃어 가던 어느 날 TV 속 결혼식 장면을 보고는 자신의 아내 리사에게 "우리와 결혼하자"고 깜짝 청혼을 했다.

다음날 그녀의 남편은 전날 상황을 까맣게 잊었고, 그녀에게 한 첫번째 청혼도 두번째 청혼도 기억하지 못했다.

리사는 그러나 망각으로 고통받는 남편과 그들의 지난 20년 사랑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결혼식이 필요하다고 결심했다.

리사는 "남편의 기억력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다"며 "남편이 다시 청혼을 하자, 지금이야말로 결혼서약을 다시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들의 사랑은 시작부터 평탄하지 않았다. 이웃사촌인 이들은 각자 이혼 뒤 서로의 상처를 달



리사 마샬 페이스북 캡처.

래며 사랑을 싹틔웠다. 그러나 자식들이 장성하기까지 장거리 연애를 지속해야만 했고, 2009년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지만 채 10년도 되지 못해 2018년 피터의 알츠하이머가 발병했다.

30~60대에서 나타나는 조기 발생 알츠하이머는 급속도로 피터의 기억력을 잠식해 들어갔고, 리사는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을 돌보는 데에 헌신해야 했다.

이들의 두번째 결혼식은 웨딩 플래너인 리사의 딸이 팔을 건어붙이고, 안타까운 사연에 주변의 온정이 어지러 6주만에 준비됐다.

마침내 4월 26일 가족과 친구들이 이들의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을 때, 리사의 딸은 의붓아버지에게 어머니의 손을 다시 넘겼다.

리사는 "마치 동화처럼 마법과도 같은 시간이었다"며 "모두가 울었다. 그렇게 행복해 하는 피터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피터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고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에 있어줘 고맙다"는 그의 인사만은 여전히 생생하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 적십자 광주·전남본부, 외식업중앙회와 사회공헌 협약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홍석)가 21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와 나눔과 실천의 약속을 담은 사회공헌 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사회안전망 강화, 자원봉사·기부 문화 확산, 사랑의 헌혈,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 협력하며 스노이웃을 위한 활동을 함께하기로 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본부 제공>

# 화순전남대병원·국립장성숲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화순전남대병원과 국립장성숲체원이 최근 코로나19로 지친 병원 직원들의 심신 회복을 위해 '힐링 캠프'를 열었다. 캠프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에게는 병원 내에서 소규모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 농협 전남본부, 전남도교육청과 도시학생들 농촌체험학습 지원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는 전남도교육청과 협업체 '2021년 1학기 전남농산어촌유학생' 체험학습(사진)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농협은 농촌에서 체험형 활동을 할 수 있는 '팜스테이' 마을과 연계해 학습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남농산어촌유학'은 도시 학생들이 6개월 이상 전남으로 전학 와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1학기에는 서울 학생 82명이 전남의 20개교(초 13개교, 중 7개교)에서 유학 중이다. 이들은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마을 돌봄을 연계한 생태·환경 체험을 한다.

오는 7월9일까지는 216명이 총 6개교에서 체험을 한다. 순천 월동초 학생들은 광양시 옥룡면 도선곡사 마을에서 손두부 만들기과 쪽빛염색체험을 한다.

2학기에도 전남농산어촌유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농촌체험이 운영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아모르파티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속아도 꿈결(재) 40 지구촌 뉴스	45 창사60주년 특집 다큐플러스 스페셜	10 SBS 뉴스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0 열린채널	00 멀리서 보면 푸른 봄(재)	5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애니갤러리 30 헬로키티10 뱅 45 히나와 숲속친구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영화가 좋다(재)	00 12 MBC 뉴스 20 치치핑핑 시즌3 50 뽀빠이 친구친구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45 네모세모
1	00 KBS네트워크특선 이스트 라이프 50 근대사 100년, 그들의 증언 55 UHD 숨터(재)	20 영상앨범 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꾸러기 식사교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국회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		30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뱅글스쿨(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시사건건	00 UHD 환경스페셜(재)	55 5 MBC 뉴스	00 행복설계 알짜배기(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또봇V-우주수호대 15 종알종알 돌돌이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50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테마스페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이리 오나라 조선클럽	50 미스 몬테크리스토	05 밥이 되어라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속아도 꿈결	30 TV는 사랑을 싣고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랜선 장터	00 미치지 않고서야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40 류수영의 동물티비(재)	20 라디오스타	40 백중원의 골목식당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40 스튜디오 K		
12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0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통합뉴스룸 ET(재)	00 오마이싱어	15 나이트라인 45 닥터 365 50 남도의 보물 100선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세미와 매직큐브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역사놀이매 아리아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크쇼
07:00 코요태2	12:10 극한직업	19:05 드래곤 길들이기: 세상 끝으로
07: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5 자이언트 팽TV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10 EBS 다크프라임	19:50 가족이 맞습니다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05 지식채널e	20:40 세계테마기행 1~2부
08:00 딩동댕 유치원	15:15 클래스e	<여름날의 꿈
08:30 출동! 슈퍼윙스	15:3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아웃 오브 아프리카, 케냐>
08:45 한글용사 아이야	15:50 가만히 10분 명TV	21:30 한국기행
09:00 시공	16:00 마사와 꿈	<달콤한 나의 도시 3부
09:15 봉구야 말해줘2	16:15 개구쟁이 조이	녹음 따라 걸다 보면>
09:30 물랑	16:30 딩동댕 유치원(재)	21:50 EBS 창사특집 교육대기획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내 친구 문덕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22:45 바닷가 사람들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3일(음 5월 14일 壬寅)

☎ 010-9790-8237

<p>36년생 또 다른 차원의 면모를 발견하게 된다. 48년생 무심코 한 행위가 화근이 될 수도 있는 국세이다. 60년생 집착하지 말고 대범하게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72년생 관점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84년생 징후를 무시하거나 연기한다면 불행하게 된다. 96년생 지나친 경계심은 활동 반경을 축소시킨다. 행운의 숫자 : 12, 82</p>	<p>42년생 잔술밭에서 바늘을 찾고 있는 형국이니라. 54년생 예초의 예상 대로라면 순기능을 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66년생 이득이 발생할 것이니 즉시 실행함이 유익하다. 78년생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다. 90년생 잘 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애를 먹겠다. 02년생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47, 75</p>
<p>37년생 변화를 예고하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 닥칠 것이다. 49년생 어렵잖아서 집착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61년생 만전을 기한 후에 임하는 것이 낫겠다. 73년생 파종을 했다 하더라도 손질이 가야 결실이 이르리라. 85년생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필요하느니라. 97년생 밤심하다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 된다. 행운의 숫자 : 15, 65</p>	<p>43년생 취약한 곳은 철저히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55년생 돌심양면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67년생 다양한 관점으로 조망하여 보완할 수 있다. 69년생 중복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1년생 명쾌해야만 뒤돌아볼 수 있다. 03년생 가변적인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10, 66</p>
<p>38년생 지말하지 않으면 결손이 생길 수밖에 없다. 50년생 소중했던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기분이 들 것이다. 62년생 이재로운 세계를 접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74년생 불만족스럽더라도 미래 지향적인 안목이 절실하다. 86년생 치열하게 고생한 만큼 보람도 느낄 것이다. 98년생 숨이 막힐 정도로 감쪽 놀랄만한 일이 생기리라. 행운의 숫자 : 17, 73</p>	<p>32년생 근사치가 될 것이니 만족할 만하다. 44년생 충동을 자제한다면 화를 면하리라. 56년생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는 것이 지혜롭다. 68년생 애매하다면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합당하다. 80년생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지키는 것이 낫다. 92년생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다 알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11, 59</p>
<p>39년생 다 된 마당이니 깔끔하게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51년생 지나친 집착은 대국을 망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63년생 한 번 실수한다면 오점으로 남으리라. 75년생 돈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가 나게 되어 있다. 87년생 점예한 논란에 휩싸일 수다. 99년생 판도는 자신만을 기다려 주지 않느니라. 행운의 숫자 : 24, 52</p>	<p>33년생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 45년생 과거의 행적과 연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57년생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69년생 검토해 보고 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81년생 속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해 본다면 해결점을 도출할 수 있다. 93년생 막연하다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18, 86</p>
<p>40년생 주저 해왔던 일에 대한 결집이 나타날 것이니 함께 하라. 52년생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허히 수용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64년생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라. 76년생 희망찬 미래를 기약 하라. 88년생 서두를수록 남보다 우위를 점하게 된다. 00년생 현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확실 히 벗어나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31, 90</p>	<p>34년생 원칙을 중시해야 체계가 설 수 있느니라. 46년생 조짐을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리라. 58년생 누구도 알지 못하는 혼자만의 곤혹스러움이 보인다. 70년생 급하게 추진하면 반드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82년생 중간 점검과 대조가 절실히 요망된다. 94년생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될 문제이니라. 행운의 숫자 : 08, 62</p>
<p>41년생 정고한 후에 판단해도 늦지는 않겠지만 속도감도 중요하다. 53년생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라. 65년생 확실한 의사표시와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77년생 겹치는 일이 많아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89년생 고통은 미래의 희망을 여는 활력소가 되리라. 01년생 적절한 절제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9, 97</p>	<p>35년생 과거의 앙금을 털어버리고 흔연히 대하라. 47년생 목표지에 미치지 못하여 아쉬워하게 된다. 59년생 분명히 해줘야 뒤돌아볼 수 없는 법이다. 71년생 가벼이 여긴다면 그 속에 숨은 진가를 쉽게 놓칠 수도 있음을 알라. 83년생 불필요한 걱정은 심신을 쇠잔하게 할 뿐이다. 95년생 처음에는 어려우나 점점 쉬워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3, 58</p>